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매진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자동차 공장, 울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장. 바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수식하는 말이다. 현대자동차는 아산과 전주 그리고 울산에 공장을 설립해 놓고 있는데, 울산공장은 단연코 세 공장 가운데 핵심지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이곳은 37,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연 440만대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울산은 물론 국가경제를 이끄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곧 화재, 폭발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인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황해철 차장을 만나 어떤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취재 김성대 기자 glshu002@safety.or.kr

황해철 차장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지원사업부 안전팀



확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한 안전인

황 차장은 이곳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개하면서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바로 ‘근로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은 자연스럽게 철두철미한 안전관리로 발현되고 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물론 출퇴근 교통사고, 운동 중 사고 등 전 방위에 걸친 안전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소요예산들을 사전에 파악해 최상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업무가 추진과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해결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안전교육이다.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이라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달려간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작업자들의 사소한 부주의,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시스템 안전관리 전개

누구보다 확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 황 차장. 특히 그는 빈틈없는 시스템을 근거로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적극 전개하는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야말로 시스템 안전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전의 습관화 강조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에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황 차장이 안전관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전의 생활화, 습관화다.

“많은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바로 그것이지요. 재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전국 안전보건교육 경진대회 대상 수상, 대한민국 명강사 인정서 수여, 전국 안전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 참가하여 모두가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흥미 있게 호기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기법, 정보교류 등을 통해 그가 얼마만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매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물론 그가 단순히 근로자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안전이 한 기업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황 차장은 “기업의 가치는 얼마만큼 안전관리가 튼튼히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돼야 한다”라며 “특히 안전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확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황해철 차장. 그가 앞으로 어떤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본원칙 준수와 안전문화 성숙으로 중대재해 ZERO 및 산업재해 저감’, ‘환경 사고 및 화재사고 없는 녹색공장 구축’, ‘예방보건 활동 강화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실천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황 차장은 위험 취약 직종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뇌심혈관계질환 근로자를 추적관리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순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는 프레스공장, 자체공장, 도장공장 등 공장 별로 총 8개의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반장 이상 관리감독자들의 안전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안전활동은 사내를 넘어 협력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15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도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